

지 상 법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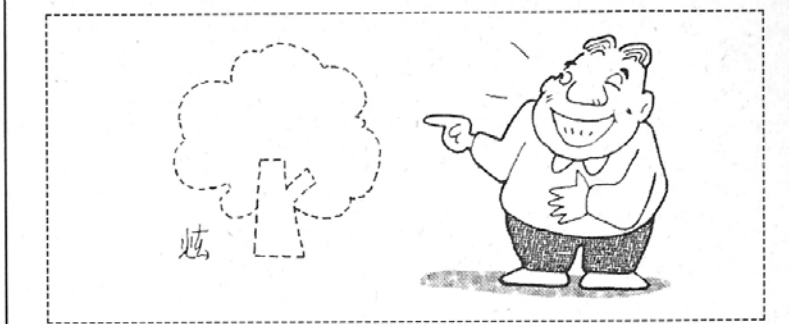
부처님 닮은 삶 못 얻습니다

경에 매였으니 천차만별(千差萬別)이 달라지고 마음의 체는 안으로 일심(一心)이니 평등인여(平等一如)합니다. 이 마음의 체를 일으키는 데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경을 보는 등 정진이 계속됩니다. 이를 수행이라 이르니다. 이는 믿음이나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을 요합니다.

여인을 방안에 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과격할 수 없어 방안에 선을 그어놓고 방새도록 정진을 하였 습니다. 관세를 보살은 그 수행인이 자 비심 있음을 보고 한 술 더 떠서 밤중 에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낳으려 하니 산탕(産湯)물을 준비해 주시오"하 니 그 수행인은 준비한 마음을 내어 산탕물을 끓여 주었다니 그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향내가 진동하였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목욕물이 남아 있 으니 당신도 들어와 목욕하시오"하여 목욕탕에 들어가니 몸과 마음이 기쁨 으로 가득 차고 전신이 황금빛이 되었 으며 그 여인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이 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 일인 사리불은 본래 외도에 출가하였 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성과 지혜가 뛰 어났기에 외도의 가르침에 만족지 못 하여 그의 친우, 목건련과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지혜로운 좋은 가르침 을 만나면 서로 권하여 그 가르침에 들 어가자'고 하였습니니다. 어느날 사리불 에게 마승(馬勝)이라는 부처님의 제자 가 와서 말하기를 "진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지요 내 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라" 함을 듣고 갈탄하기를 "이 말은 신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내 가 창조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창조 의 원리로서 인연론이 제시되었음을 알겠다" 하고 목건련과 함께 불교에 귀 의하여 사리불은 지혜 제일이 되고 목 건련은 산통 제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 일인 사리불은 본래 외도에 출가하였 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성과 지혜가 뛰 어났기에 외도의 가르침에 만족지 못 하여 그의 친우, 목건련과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지혜로운 좋은 가르침 을 만나면 서로 권하여 그 가르침에 들 어가자'고 하였습니니다. 어느날 사리불 에게 마승(馬勝)이라는 부처님의 제자 가 와서 말하기를 "진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지요 내 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라" 함을 듣고 갈탄하기를 "이 말은 신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내 가 창조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창조 의 원리로서 인연론이 제시되었음을 알겠다" 하고 목건련과 함께 불교에 귀 의하여 사리불은 지혜 제일이 되고 목 건련은 산통 제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데모크리토스 이래 서구의 원자론은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이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를 원자라고 불렀다. 물질의 구성요소로서의 원자에 대한 최초의 이해는 주기율표가 완성되면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접하는 물질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해 보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원자는 1백여 종 밖에 안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원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자를 이루고, 무수히 많은 수의 분자들이 모여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질 즉 거시세계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주기율표를 완성시키기는 하였으나, 그때 까지 원자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이후 원자 구조를 탐구하면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원자론이 본래 의미하였던 바와는 달리, 원자는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우선 이 원자의 구조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간단한 구조의 원자는 수소 원자이다. 수소 원자는 하나의 양성자가 원자핵을 이루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양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양 형 진

중도철학과 원자론

철다고 하고, 맛있다거나 맛없다고 하며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고 한다. 20세기 초의 과학자 일부는 원자의 구조를 알고 나서 자연의 궁극적인 모든 구조가 밝혀 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탐구의 시작이었다.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것 역시 궁극적인 물질은 아니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수없이 많은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미립자들의 수명은 불과 10<sup>-23</sup> 초에 불과하니, 순식간에 이어지는 생과 멸은 분자 그대로의 생과 멸이 아니다. 생과 멸 서로에 대해 동인(動因)으로 존재한다. 생과 멸이 동시에 공존하며, 역동적으로 결합하여 있다. 바로 생즉멸이요 멸즉생의 세계이다. 이러한 존재 양식은 생이나 멸 그 어느 것으로도 온전히 표현될 수는 없으니, 이를 일러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월정(月正)스님이 불생불멸의 말이 찰라멸이라고 해석한 것은 현대물리학의 관점과 연관된다 하겠다. 이처럼 순진하고 말하는 이 미립자들이 고경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성을 가지지 않는 무수한 미립자들이 관

“전생에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은 것이 그것이요 내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지은 것이 그것이라”

“극락세계는 자기마음속 자비심에 있어”

로 정진하는데 한번은 지혜는 뛰어난 자비심이 부족하고 한 분은 자비심과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두분을 돕기 위하여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의 몸으로 나뭇 바구니를 들고 남쪽 암자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웃 동네 여자한테 날이 지어갈 길 길을 못 찾았습니다. 산중에는 호랑이 등 맹수들이 많으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하룻 밤 재워주소서" 남쪽 암자의 스님이 대답하기를 "당신 같은 젊은 여자와 있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 기 쉽소. 호랑이 등 맹수의 존재는 당신 의 문제요. 나는 파계하기 싫소" 하고 냉정하게 여자를 쫓아 버립니다.

런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부처 가 된 친구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이르 기를 "목욕하던 물이 남아 있으니 들 어와서 목욕하소" 하기에 그 목욕탕에 들어갔으나 물이 부족하여 반만 금빛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혜는 자리(自利)의 행이 주가 되고 자비는 이타(利他)의 행이 주가 됩니다. 이 설화는 자리의 행도 중요하지만 이타의 행이 더 중요하고 실행하기 어 렵음을 보인 것이요, 어려운 자비행이 이루어지면 부처 이루는 것이 멀지 않 음을 보여줍니다. 지도론(智度論)에 의 하면 석가모니와 미륵의 관계에서도 지혜보다 자비가 부처를 이루는 중요 한 길임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이고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의 내용이고 불교는 부처가 되는 길임을 말하였습니 다. 이를 불(佛) 법(法) 승(僧) 삼보라 고 일러 삼위일체, 즉 셋이면서 하나이 고 하나이면서 셋으로 말합니다. 불교에는 전기(轉機), 즉 마음을 돌 리는 기틀과 전어(轉語) 즉 마음을 돌 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를 배우기 위하여 절을 찾고 법회에 나가서 법사를 배우고 법문을

인이 그러하기 위하여는 동체대비의 입장에서 다음 몇가지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첫째, 인연의 도리를 깨닫자는 것입 니다. 인연이란 자칫하면 숙명론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것은 길거리에서 웃기 한번 스치는 것도 5백생의 인연 이라 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인연 의 함 뜻은 숙명론보다는 창조론입니 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는 신 창조론을 주장하지만 불교는 인연의 법칙에 의하여 모든 것 이 창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연의 인(因)은 주제나 즉 자신을 말하고 연(緣)은 조연(助緣)이니 즉 인을 도와주는 환경을 말합니다. 인과 연이 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인 과 연이 흩어지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은 반드시 인연의 법 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흩어지는 것 이 우연이나 자연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삼세인연이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 니다. 인연의 주된 세력은 업(業)으로 서 과거에 지어진 인연을 말할 때는 숙명론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말할 적에는 창조론입니다.

가게에 가서 돈을 주는 것과 동시에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이를 동시인과라 합 니다. 그러나 동시인이라 있는 것이 아 니라 이시인과가 같이 있으니, 예를 들 면 봄에 꽃이 피었다 떨어지고 가을에 열매가 성숙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는 삼세를 주장하기에 현재의 인과도 알기 어려운데 과거의 인과와 미 래의 인과는 더욱 알기 어려운 점이 있 습니다. 내가 창조자임을 알아야 미래의 인과에는 금생(今生)에 지어 서 금생에 받는 것을 순시(順時)인과라 하고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것을 순생(順生)인과라 하고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든지 내생에 받든지 후생에 받든지 정하지 못하는 것을 부정(不定) 인과라 합니다. 그러나 인연과 인과의 법칙은 없어 지지 않아서 가사 백전검(劫)이 지나가 도 없어지지 않았다가 인연이 다시 만 날 때에 인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假使百千劫 所作業不滅 因緣會遇時 果軌還自受)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찰라생멸하는 무수한 미립자 본성 없어 중도철학은 양극단을 포섭한 호의 세계

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1천8백 배 가량이므로 원자의 질량은 거의 대부분 양성자의 질량이다. 따라서 수소 원자의 경우 원자핵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1천8백배 가량이 되며, 다른 원자의 경우 이는 대부분 전자 질량의 3천6백배 이상이다. 그러나 원자핵의 반지름이 10 m 정도이고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5 x 10<sup>-10</sup> m 정도이니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 적 부피는 그들의 질량과는 오히려 반대이다. 워낙 작은 숫자들이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 성자를 반지름이 1cm 정도인 구슬로 부풀린 다고 하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5백 m 정도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은 반지름 1cm인 구의 작은 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원자 질량 의 1/1,800 밖에 안되는 전자는 반지름 5백m 의 구가 차지하는 삼차원 공간을 도는 것이 된다. 더우기 이 두 구가 차지하는 부피의 비 는 1:125,000,000,000 정도이다. 가령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전자를 다 떼어내고 원자핵 만으로 뭉쳐 놓는다면, 반지름이 0.01mm 쯤 되는 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넣어있는 어떤 물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물체의 질량의 대부분은 100조분의 1이라는 작은 공 간에 몰려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거 의 텅빈 공간일 뿐이다. 우리는 사실 그 텅빈 공간을 보고, 만지고, 맛보고, 듣고 하면서 아 름답거나 추하거나 하고, 매끄럽거나 거

불교성지순례 (주) 아태관광. Table with columns for destination (태국, 미얀마, 인도, 대만, 스리랑카, 인도-네팔, 하와이, 지중해, 중남미) and details like departure dates, itinerary, and prices. Includes a '여행조건' section at the bottom.